



제 몸을 제가 이겨 뛰어나가라. 마땅히 스스로를 힘써 뛰어라. 자기를 뛰어 이룬 것이 없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쳐 댈 것인가.
(송하권·에디션 185집)

東大新聞

편집장	김민준	인사	김민준	발행	김민준	편집	김민준
주필	김민준	발행처	동국대학교	전화	100-715	팩스	100-715
발행처	동국대학교	전화	100-715	팩스	100-715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0-3492)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0-3492)	팩스	100-715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0-3492)	팩스	100-715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0-3492)	팩스	100-715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0-3492)	팩스	100-715

제 1086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호 우편번호(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1년(단기4324년) 11월6일 (수요일) [1]

청년만해의 기개로 자주동악을 노래하라

1991년 학생의 날에 사명복을



제62회 학생의날 특집호 주요기사

- 2면 열린 글터
- 3면 보도기사
- 4면 시리즈-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
- 5면 상설연합체 건설전망
- 6면 총학 선거 운동본부 탐방
- 7면 좌담-총학 임후진자에게 듣는다
- 8면 기획취재-학자투 전방과 과제
- 9면 시국사건 관련기자 모음
- 10면 '동학의 노래'의미
- 11면 보도기사
- 12면 민중미술의 흐름

그림: 예술대학 미술학과 벽그림과

사설

이공계의 활성화방안

본교는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대학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이공계열에 입학정원90명 증원과 함께 기계공학과 신설이 이뤄졌다.

지난 8월 발표된 대학평가에는 대학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물리, 전자공학과를 시작으로 95년까지 이공계열 전 학과로 확대하고 지난 8년동안 동결됐던 수도권 입학정원을 풀이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정책 속에서 본교의 대치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현실적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대학 평가에서 일부대학이 낮은 판정으로 각성과 새로운 발전노선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교는 후진 현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왜 'A급'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 각성과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현실이 그나마도 다행이라며 안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기계공학과 신설로 학교당국은 적지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당장 60명의 신입생을 얼마 안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판에 강의실을 비롯한 제반건물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음을 지적할 수 없다.

날로 높아만가는 세계무역경쟁에 오직 첨단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이공계열의 지원, 육성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본교 이공계열의 현실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제반에서의 재정적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실험실습기자재, 전문도서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실습 등 예산확보가 중요한 발전정도를 가늠해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대학이 마치 취업생이나 직업인을 배출한다는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은 무엇보다 전문인을 길러내는 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 의무를 가하여야 한다.

셋째 문학, 사학, 철학이나 대외적 인문계열 중심의 학과이미지를 탈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것은 이공계열 육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농학계열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서울 11개관과대학, 경주 6개관과대학을 갖고있는 본교는 어느 대학보다도 다양한 학과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목표가 몇몇 단과나 학과로 집중되어선 안되며, 스스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학교당국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교의 자연계열은 이과대 4개학과, 농과대 3개학과, 공과대 8개학과, 경주 자연대 7개학과와 한데,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적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요즘 기업체가 학교에 직접 투자, 연구자원을 하고 있고 사회 진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대학도 동문이나 기업인, 불교계등과 연계를 형성, 협력체제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넷째는 정부사수에 맞는 이공계열내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평가형태의 정부차등지원이 계속된다고 볼때 장기계획이 단기적 성과에 만족해선 곤란한 점을 기대하기 힘들다.

본교의 경우, 민병철총장이 취임하면서 강력히 표명했던 제3캠퍼스건설에 있어 이공계활성화방안인 함께 검토되어 그로인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대학의 빈약한 재정을 호소하는 학생, 교수들의 요구에 정부는 평가에 의한 지원이란 말로 사학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해버리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을 비롯한 대학발전은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는 각대학의 문제임을 각인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으로서도 제반전입금확보등 스스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그과제라고 본다.

공과대 양적성장과 함께 내실 기하길
실력 양식있는 교수채용이 우선 과제

대학평가 인정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실시했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채 그 결과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중앙대나 시립대가 C등급을 받았는데 그레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온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한다.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문과 학교발전이 기여하게 되며 제단과 대학이 서로 자체발전에도 노력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평가의 공정성과 지역간 또는 국·사립간 균형의 문제(“차등”을 매겨 지원한다고 하는것이 학교간 우월의식 조성), 부실한 대학의 ‘부위부’ 빈익빈/빈익부의 문제등 시행전부터 그 문제점은 이미 말할 수가 없다.

열악한 재정구조의 군·소사립대

학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겠는가. 오히려 군·소 사립대학들이 안고있는 어려운 문제를 받아안고 교육정책확보를 통한 우선지원이 균형있는 대학발전에 일조하리라 생각한 다.

이런 교육부의 종합평가 B등급

의 혜택을 받은 우리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울시에 전체 공과대에 기계공학과가 없는 대학이 1~2개 대학밖에 없음을 고려할때 기계공학과와 신설은 늦은감이 있지만 동국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린글터

여러분의 생각을 동양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본사 여름매체부는 동대신문의 모든 특자들을 위한 공간을 항상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또는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2배자원외 3~5배 정도 부담없이 적어서 가져 오십시오. 글을 못쓰신다구요? 그럼 만화나 사진도 좋습니다.

골프장유치로 신음하는 영일군 송라면

국회의원의 업적이라 떠벌이기까지

단체 선거기간 중 골프장 문제로 골치를 앓는 송라면에서 골프장 유치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토요일 아침 모이기로 했던 단원들이 선거관세상 참가를 못하게되어 단원으로 송라에 도착했다. 이미 그 곳엔 경주전문대와 선연의전학20명 정도가 미리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을입구 도로에는 ‘골프장 차량 출입금지’라고 큼직하게 써있고 곳곳에 ‘골프장 건설 반대’라 쓰인 깃발과 플래카드가 널려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집집마다 같이 붉게 익고 무뎠을 햇살이 깔렸어 너무 눈부서 평화로운 고향마을이었다. 하지만 마을어귀 도로에는 골프장 보초를 서고 집으로 돌아가던 행렬 2명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골프장 입구 산비탈길에는 바쁘게 굴러 다니며 할 트레일러들이 공사장비 진입을 막기위해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인 싸움 이전에 타격을 끝내 놓으려고 아우성이었다. 타적이 생각보다 힘들어 잠깐 쉬는중에 한 아저씨의 말씨가 충격적이었다.

골프장 대동개발 사장이 옛날군수를 지낸 늙이더 더 가만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 모든 송라 골프장유치가 자기업적이라며 떠벌어 주민들이 항의도 하였다. 적이 도 송라에 여당표 찍을 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골력배들도 자기개발 면에 어쩔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

몇몇은 내일부터는 안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신문기자들도 취재해 간 내용을 그대로 실지 않더라며 노인들만 남아 기특이 일손도 부추한 터에 동네 청년들 몇몇만으로는 너무 할 일

날씨가 재빨리 쌀쌀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뜨거운 여러분의 가슴을 열린 글터에 담고 싶지 않습니까?

미팅남자 다량확보
-From Civil Engineering Man
기기를이형 /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졸업선배
사랑을 찾습니다. 부탁해요. / -나재훈(산공'89), 김동민(산공'91)
삶을 사랑하고 인생을 창조하며 사는 자랑스런 우리 농생인들. 특히 농생91학번들. 얼마남지 않은 1학년생활 멋지게 보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못지않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농생91학번이 되길
-여러분을 항상사랑하는 벗이
우식이형, 원섭이형 마지막 일기까지 글씨에 동약을 찍어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열렬한 팬 최불암과 금동이
한국농경학회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석, 화동, 현구
매운 것은 있지만 10월 18일 착하고(?) 예쁘기 그지없는 우리 꼬마 영숙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10월25일 난주의 생일도 축하하구요. -국문 '89 지혜가
인도철학과 89학년 정경란씨 오느일 점심집 같이 드

농민들을 뒤로한채 일요일 저녁 늦게서야 돌아오는 길에 피로감보다는 UR에 골프장에 다국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과 이를 외면하는 우리 학우대중의 모습에 발걸음이 어찌나 부끄러워 가슴이 미어 터질 듯 했다.

강석봉
(상경대 경제학과)

다향관 보리수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금연-환풍시설 확충 필요

지금까지 다향관 보리수는 동양 일반학우의 '휴식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다향관의 휴식 이용학우의 급증, 시설의 미비로 인해 그 본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배적'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

보리수 입구에 들어서면 뽕뽕 담배연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한잔 마시는 시간동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분명 환풍기는 돌아가고 있으나 자욱한 연기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창문을 열어 환기에 도움이 됐지만 겨울 난방으로 온풍기가 설치 가동되면 보리수는 빈껍데기 공간이 되며 환풍은 지금보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제 몇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향관 보리수의 금연구역화.

이미 우리는 학생식당의 금연구역화에 좋은 반응을 얻었고 보리수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금연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단지 담배가 끼치는 개인적인 해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장소로서 보리수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의미를 가진다.

둘째, 다향관 보리수의 환기시설 확충이다. 현재 배기시설은 사실상 미비하고 환풍에도 환기의 필요성은 있다. 이에 외적비를 고려한 환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양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성원의 의식에 달려있다. 자신을 위하여 금연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휴식공간의 쾌적함을 위해 학우들의 자제가 꼭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들이 실행될 때 보리수는 단순한 배적이 아닌 학우들의 휴식공간으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상(사회대 정의과)

또한 신입생증원과 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식품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등 5개학과가 이번 교육재정을 하는 것은 또한나 공과대가 내실있는 발전을 이루는 나 양적인 팽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자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력있고 양식있는 교수진을 모셔오는 일은 중간부족의 해결, 교과구조의 개선, 실험·실습기자재구입과 더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한다.

강정현
(사범대 교육학과·중양교과과정위원회 위원장)

**구속학우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요 며칠사이엔 날씨가 겨울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마음까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다. 차가운 겨울을 더욱 즐겁게 느끼며 살아가는 학우들이 있다. 영희의 몸으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갇혀있는 학우들이 바로 그들이다. 민학련 관련으로, 반미구국전선으로, 민자당사 집기로 우리곁에 있지 못하는 학우들이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는 요즘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바쁜 발걸음들이 다그쳐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취직준비를,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학업에 대한 고민과 준비로 바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잠시만, 아주 잠시만 걸음을 멈춰보아 / 우리의 학우들을 생각할 땀의 여수를 지녀보아. 겨울이 되면 감옥안은 더욱더 추워진다고 한다. 차디찬 감옥안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우리들의 편지라고 한다. 차가운 겨울, 간절한 학우들을 생각하며 편지라도 보내어, 우리의 작은 마음이 차가운 겨울을 지내는 학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차 한 선(불교대 인도철학과)

또 잡혀간 우리 학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남대로 넘어간 국가보안법의 총화도 또 하나의 우리 친구를 채워줄이야. 항상 민주를 논하고, 자기 몸을 바쳐 이방 모순을 깨부수기 위해 절절한 몸부림치는 우리 학우를 하나하나 차디찬 감옥으로 끌고가는 저 파쇼정권. 강경대군 김규정양을 죽인 정권. 헌 정권이 민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제법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물가오름에 시달리게 하며, 자본가의 전권을 만들어내는 노태우정권을 이념 팔장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은 남김없이 철폐해야 한다는건 이제 떠들고도 삼다.

이제 우리 학우를 잇따라 노태우정권에 분노의 불꽃살을...하여 우리 학우를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

최성순(경상대 경제학과)

해서 짧은세대에 학생들은 고풍적인 땅이치러질 못하게 높아지고 안하무인이 되어가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또한 필자가 수위로서 느끼는점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밤이 되어도 귀가는 커밍 아예 생활의 전부를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일부는 시도때도 없이 밤을 낮삼아 드나들고 심지어는 사내에서 술만 마셨다하면 학교가 주당들의 도피처 활용되고 있으니 학교로서의 명분은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

목전에 둔 학교로서 역사의 소용돌이도 많이 겪었고 또한 역사와는 무관한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어떤 만큼 방대한 발전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학교측도 C급판정을 면했다고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국인 모두가 삼기발전하고 내오각성해서 작은일에도 학생신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학교의 건학이념인 자기완성과 진리탐구에 매진할때 간판이나 따라 다닌다는 인상을 내어 C급 판정을 받을 것이다. 한가지 부연한다. 면 학생은 학생신분을 벗어난 어떤 한 자리에 군림해 서도 안될 것이다. 사실은 분수를 망각하고 이들을

학생의 날을 맞아

요즘 우리사회는 지도자가 없다. 있다하더라도 선풍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거기에는 학교나 사회나 젊은 세대에 있어 몇몇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식당의 금연구역화에 좋은 반응을 얻었고 보리수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금연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단지 담배가 끼치는 개인적인 해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장소로서 보리수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의미를 가진다.

둘째, 다향관 보리수의 환기시설 확충이다. 현재 배기시설은 사실상 미비하고 환풍에도 환기의 필요성은 있다. 이에 외적비를 고려한 환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양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성원의 의식에 달려있다. 자신을 위하여 금연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휴식공간의 쾌적함을 위해 학우들의 자제가 꼭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들이 실행될 때 보리수는 단순한 배적이 아닌 학우들의 휴식공간으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상(사회대 정의과)

백년전통 명문사학 재건에 힘쓰라

자기완성-진리탐구에 매진할 때

인 듯하다. 얼마전 관계당국에서 C급판정을 받은 모학교 학생들이 항의를 하였다 하는데 이것이 어찌 학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학생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그 생각은 바이다. 돌이켜 보면 대 우리학교는 설립한지 1세기를

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립인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고래진
(후문 수위아저씨)

東國漫評

송태영

차라리 별 따는게 더 쉽겠다.

동학 광장

■일립
쌀수입 반대, 수매가를 인상하라!
-통일을 염원하는 전진실공
■불교합창단 22회 정기공연
주최가 오는 9일 오후5시30분에 본교 중앙당에서 개최되오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불교합창단
■평균을 회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하3순재
■To, 우주
우주(농생'91)의 특남과 스폴한번재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니열
■정의의 사람들'의 주연이라고 우기는 스페인(고영규 선배님). 열심히 하세요. 7.8, 9,10일 매일같이 소극장으로 지나갈게요.
-말생정이 후배
■농생과 학생회장에 등극하신 사상원선배님! 축하드려요.
-농생과'91 한 후배
■세월이
생일 축하합니다.
-일화과'91 여학우 일동
■중간내기 들쭉(진숙)에게 어려운 고난이 타쳐도 힘내라(내사랑 내결). 과거의 추억은 모두 저우고(추억속의 열쇠). 새출발하기 바란다. 열심히 살자(다시 사랑할 수 있다).
-농생'91 배발
■공대 땅콩씨!
Tennis치는는 모습이 무척

상쾌해 보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하세요.
-농생과 M
■민에게
기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에 감사하며...
-Young
■일제야
잠깐동안의 나의 의도를 용서해줄수 있었나?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가을을 느낀여자
■사육아
열심히 살리라. 건강하고 씩씩하게
■숙지나, 유지나, 재영이 모두 연극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우리 '사랑의 첫집'도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사랑자기
■우리D.U.C.A.의 부산갈매기 최원석(671)의 일대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역사교육과 '91동기들에게 안녕 동기들이 우리 서로 사랑해보지 않을까. -현정
■승렬야
힘내라!
-민사 '91 동기
■주목, 시선 집중!
토목과 기저재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가 있시오니 티켓구입의 기회가 돌아오면 주저 말고 구입하세요. (1천원) 예매를 서두르세요!

실 수 있었습니까?
-木石
■11월11일은 가을 카니발이 있을 예정이오니 宗友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철학과 慶氏宗親會
■불교학과 학생회장에 당선하신 장보형 축하해요.
-사랑으로 동진 '91
■지년2일 화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었던 전현수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짜씨의 only 영원한 팬클럽원인 L.G.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짜씨의 woodstock
■승진야 속히 돌아와라.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우역학과 2년일동
■정목이가 2학년 1학기 과 대표예요. 우리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역 '91일동
■오늘(6일) 늦은3시 NII 여기는 목욕과 온풍기의 무연이 모여서 서로의 몸을 다지며 심포지엄을 개최한대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Jordan
■규영야
스물두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선무부 40인의 입을 모아 상운이가 대표로 뽀뽀를 해주어야. 다른 사람의 일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달려와라.
-우역학부
■행성'91 이북에게
2억마리(?) 등 선택된 극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전영희

■11월9일 개설25주년 기념 산공인의 밤이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 함께 여기' 오후 6시30분에 있습니다.
-전진의 이름 산업공학과 학생회
■아! 글세 창식이영이...
■화학과 87학번 우창식학형이 오는 10일 오후3시 노원전철역 화랑역식장에서 탈출가를 선언합니다.
■창식이형 첫날밤에 생생하게 들려주세요.(동산장 stereo 생강나조)'
■세상에 추월을 하다니(은식이형이 킬을 잡아요).
■'찰:찰'들중 잘못된 단어?
답:창식이형이 알고 있음.
-화학과 '90들
■'오월대' 작가 한유진 선배가 온다. 11월17일 오후5시 명진관 강의실203.
'오' 또 있음.
■화요일엔 전문원 제기 의장 이철오 예곡의 붓 서문은 2기의 의장이신 아무개형님이 오후5시 학림관 소극장에 오신대요.
-동국문학회
■혜경, 현숙, 경이 우리 3기 여학우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물론 저한테도요.
-발발이가
■11월15일(금) 오후5시30분 서울사대부고 동문회 연차 받은 사람이나 못받은 사람 모두가 알아서 모입니다. 동대후문에서
-동문회장 '90 교

'동국발전' 한 목소리... 선거 가열

기호 1번 자주학생회 건설 기호 2번 민중정부 수립

내일 2차유세...투표는 14·15일

제24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지난 5일 1차유세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득연·국문4·이하 중선위) 심철신(사회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차유세는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민중정부의 새시대'를 주창하며, 청년동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호2번 이광진(전기공학3)·윤오순(정의4) 조가 나와 민중정부수립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 조는 "현보수야당은 현정권과 별차이 없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수야당과의 연합전선이 아닌 독자적인 민중정부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민중정부수립의 희망'을 부여하고 통일주의의 일환으로 우익사상, 해방동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기호1번 조관문(국민윤리4)·홍정희(국어교육4) 조는 "조국이 지워준 해방부정의 한낱 자살"을 다짐하며 "제2기 자주적 학생회를 기치로 민중정부수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

를 밝혔다. 한편 각 후보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운동원들이 문화선동공연을 펼쳐 보였다. 예년과 달리 유세기간이 30분으로 한정됨으로써 후보들의 연설이 짧게 진행됐고 정채이나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후

보미지 후보에 주력했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내일(7일) 2차유세가 도서관 앞에서 있고 11일 공개 청문회가 도서관 앞에서, 13일 3차유세가 민해광장에서 각각 열린다. 또 투표는 14, 15일 양일간



▷제24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지난 5일 1차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동국관 앞 4개 투표구에서 실시돼 16일0시부터 다량관(2층 교수숙사)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3명에 학비보조 고시지도위원회서

고시지도위원회(지도교수=손해복·법학과)는 고시 1차 합격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일부터 내년 4월까지 월 15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수혜대상자로는 강인규(법학81학번), 박성열(법학81학번), 송인만(법학81학번) 등이다.

조경수 식재 본관앞에 4백주

관리처는 '지난날 환경미화사업의 일환으로 본관앞과 코끼리상 앞에 총 4백65주의 조경수 식재사업을 마쳤다. 이는 지난날 11월 간일 조경자문위원회(위원장=서용진 관리처장)의 학내 미화 논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조경수의 종류는 주목 30년생 65주, 5년생 2백50주와 회양목 1백50주 등이다.

종비장학금등 5개항 요구

선학과 입시요강에 반발 7일째 농성



▷선학과 학생들이 5개항 쟁취를 외치며 본관을 돌고있다.

선학과와 92학년도 입시요강에 대해 선학과학생회측이 학교당국에 이의를 제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무회의를 거쳐 교육부에 승인요청한 92학년도 입시요강

중 선학과의 입시규정을 살펴보면 신입생 선발규정이 엄격해 전기에만 선발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예년의 규정에도 선학과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송리, 일반학생 선발비율을 5대5로 10명의 양분해 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신입 선학과학생회장 남철수군은 "학과와 특수성을 고려해 5대5 선발규정을 인정하더라도 선학과와 추천서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우수인재선발이라는 절에 있어 기회균등상설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시요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또한 학생회측은 학교측에 5개항을 제시하고 입시요강발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지난 31일 학생회실을 농성본부로 차리고 교무처와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학생회측에서 제시한 5개항을 보면 △종비장학금 내지 그에 준하는 장학금을 입시요강에 명시 △추천서 장구의 확대 △면접점수반영의견 폐지 △스펙리모집에 따른 과중원수구 등이다.

교수동정

▲정용진(정의교과과) = 지난 1일 열린 한국공법학회 제21회 학술발표회에서 '남북한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주제로 발표

▲최영조(경주캠퍼스 미술학) =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관훈동 경인미술관에서 제6회 개인전

본사사령
◆임기자 박수호(야간 무역1) (11월6일자)

법과대 내부 문제 새 국면

교수-학생 간담회로 해결책 모색

법대 내부문제로 진통을 겪고있는 법과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강유식)는 오늘(6일), 교수-학생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상을 규명했다.

이날 간담회석상에서 비상대책위는 질의에서 스지년10월 10일 백모교수 연루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순간성명의 투서지 확인에 대한 대학위원회 보고 내용의 진상 △교수수집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법대 제1차 사안이 손조를지 못한것에 대해 동국법학중흥을 위해 교수님들의 대안을 밝혀 줄것을 요구했다.

지한 모색보다는 서로 감정싸움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대발전의 대안을

학생들이 주제로 나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학교당국도 지난날 교

무위원회에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해례에 나섰다.

본사 보도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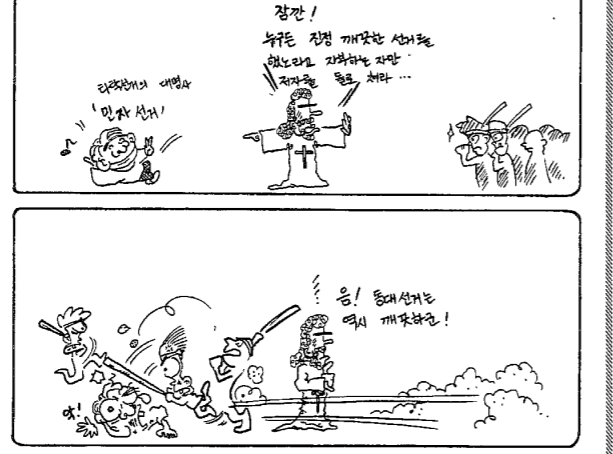
민중문화창달과 참언론의 길을 40여년간 걸어왔던 본사주최 제2회 학생의날 기념 제4회 보도사진전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교내 불상 앞에서 열렸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의 자매결연이 공식화됨에 따라 내년에 독일에서 공동학술발표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11월중 독일연방 바이에른 주정부 문부성의 정식설

올바른 학생회선거를 위한 제언 ③

이런 선거 되어야지요!



국고보조 3억2천만원

도서구입-실험 실습비등에

'91년 사립대학 시설비확충 국고보조금으로 본교에 3억2천17만1천원이 최종 책정됐다. 지난 31일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도서구입비는 1억1천6백62만7천원, 실험실습비는 2억3백54만6천원으로 밝혀졌다. 도서구입비는 학생수에 비해 서울캠퍼스 6천5백60만원, 경주캠퍼스 5천1백2만7천원이며 구입도서는 학과별로 필요하면 국내간접도서, 전공원서, 기타 사적류나 전문서적 등 참고도서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실험실습비는 지난해 경쟁평

임에 사용함에 따라 올해는 전액이 서울캠퍼스에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이과대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에 6천7백19만6천원, 공과대 전학과에 1억3천6백35만원이 할당됐다. 실험실습비 전액은 과과별 실험실 기자재 구입에 사용되는데 현재 과과별 기자재구입 품목을 결정중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행할 환표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번 국고보조금액은 지난해 2억3백16만5천원보다 1억1천7백62만1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보수

이른 도시고 침치는 예언가들의 집단 발목이 있다. 선거철이 임박했기 때문 정연한

고 수원(水源)이 나르고 때 아닌 폭우로 농작물이 행렁되고, 따라서 굶주려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위정자는 할 바를 모르고 국민들은 위정자와 항쟁하고, 겨우 구한 식량도 뚝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고 사나운 병이 유행하고 화

로 낙을 삼고 밤에는 잠잔다고 했다. 위의 '월장경'에 실해진 내용은 참으로 대예언 이라고 생각된다. 예언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사상에서 우러난 지혜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승려를 지적한 내용이 그러하다. 미래판단이라던지 예언, 점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전에서

점상시대

불교는 원래 신비를 설치지 않았다. 본지는 '제행무상'이요 '회자정리'이다. 그러나 넓게 불교경전을 살펴보면 예언인듯한 것도 없지 않다. '대방포대집일장경'이 그것이다. 그 범장전품 제20을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 말법시대에 이르러면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별의 위치가 이동하고 흰색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고, 대지는 진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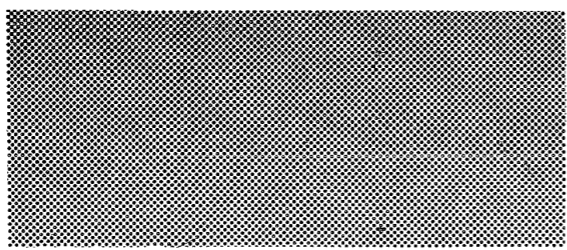
내가 많고, 서로 불신하고 살해하여 무질서할때 외근이 된다고 말하는 참담한 세계가 된다고 한다. 승려의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고,名利만을 구하고, 권력자의 노예가 되어 타인을 질투하고 학문이나 수해를 멀리하고 선행을 하지 않고, 닳아는 남을 힐책는 일

는 점상(占相)이라 부른다. 화연경 심지품에서는 "점상을 멀리하고, 정진(正見)을 닦아라"라고 설하고 있다. 행복과 불행은 바른생활을 하느냐, 사악한 행동을 하느냐의 인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점상 그것은 인간의 가장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金知見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포

전대기련



WHNS



이거 아십니까?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WHNS란 전시에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의 신속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도로, 상수도 등)과 물자수송 및 노무지원에 대한 한국의 지원내용, 비용부담의 원칙, 이를 위한 평상시 준비 및 점검(훈련) 등을 규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제2의 을사조약, 현대판 노비문서 등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평시의 전시의 구분이 없음으로 평시에 전시준비를 위한 모든 태세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 비용까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하는 협정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좀더 합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는 미국의 군화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상황입니다.

은 국토 망가뜨리는 WHNS 결사반대
주한미군 철수시켜 자주정부 앞당기자.

◆ 지난날의 전선운동에 비춰본 상설연합의 건설

지난한 투쟁역사를 발판으로 새롭게 출범할 '전국연합'

통전이 무엇인가?

1937년 중국 남경에서 11세 소년부터 60세 노파까지 30만이 넘는 중국 인민들이 일본 군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었다. 일본군의 잔인한 학살과 약탈에 직면하여 중국의 모든 계급계층의 사람들은 일제히 대일항전의 투쟁에 합류했다.

'남경학살'이라 불리는 대학살 이후 장개석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승인하고 노백린이 창도했던 국공합작을 선언함으로써, '항일민족통일전선'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미·영·일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도 반공투쟁에만 열중하여 중국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던 국민당 정부는 '정전하고 일치단결하여 항일하자'는 공산당의 구상이전 인 것으로부터 일탈한 지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모택동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자, 농민, 도시자본가계급과 민족자본가계급, 대자본가계급도 포함된 광범위하고 복잡한 통일전선으로 중국인민의 항전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연합하고 투쟁하라'는 통일전선정책은 반제민족해방운동에서 현실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중에 의거한 지도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같이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던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간의 의의와 목적의 같고한 지배하에서 대중적인 정당활동조차 자리잡을 수 없었던 남한 민족민주운동은 반합법적인 전선운동의 형태를 띠고 결집되고 발전되어 올 수 밖에 없었다.

광범위한 계 계급계층을 포괄하여 민족해방의 주제로 세운다는 '통일전선'(통전).

통전체는 식민지 사회에서 대중의 진정한 정치적대표이자 민족자본가 계급권력 담보체라 할 수 있다. 통전체는 민족민주운동을 지도하고 각계 각층 대중의 요구와 정치의사를 집중시키려는 민족해방운동의 결집체이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노획해 보려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연속적인 아래에서 통전은 민족의 진정한 정치적 대표체로 자리해 왔다.

통전은 민족해방운동에 현실적으로 입각했다는 의의와 지고하고 또한 민족해방을 쟁취하고자 결의한 민족민주 운동세력의 총결집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선운동은 식민지, 식민지 혹은 독재정권 아래 있었던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의와 목적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남한통전운동

남한의 전선운동은 상층 개인사들의 결합을 띠고있던 70년대 말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부터 시작, 84년의 민주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 그리고 양자가 통합된 85년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으로 발전되어 89년 전민련 결성으로 이어져 왔다.

많은 한계와 성과 속에 성장해온 남한 전선운동은 민족의 자주와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92~93년 대결돌기를 앞두고 보다 강고한 반

당 민권론은 대선 패배후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대오로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권론의 성과는 전민련에 비판적으로 계승되었고 89년 전민련의 결성과 더불어 해소된다.

해방후 남한 최초의 통일전선인 전민련이 결성되기이전까지 낮은 수준이지만 통전운동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 민권론과 더불어 국민운동본부(국본)로 불수 있다. 국본은 85년 유화정책에서 탄압정책으로 전환한 전두환정권이 대공공속과 고문 용공조직을 자행하자 이에 대응한 '고문 용공조직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87년들이 박정철학사 고문

이후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전술상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국본은 전선체로서의 성격보다는 공경선거 감시기구 내지 단일한 시민조직으로 위상이 하락되어 부정선거투쟁시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87년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운동세력의 분열은 민권론과 국본이라는 두개의 전선체를 거의 와해시킨 결과를 낳고 세력이 애국민주세력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체의 결성이 논의되어 89년 마침내 통전의 대마라 할 수 있는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되었다. 전민련은 노동운동 등 반합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모든 운동세력과

'공안통치분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로 전향되어 민권세력 뿐 아니라 중간층 민주단체까지 포괄하여 민주대연합의 투쟁전선으로서의 위상을 띠었다. 정권의 공안통치에 대한 탄압과 민주세력의 분열 속에서 악전고투하던 민권세력이 신속한 단결로 대규모 전국적인 대중정치투쟁을 주도했다는 것은 탄압 속에서도 성장해온 민권운동의 잠재적인 조직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5-6월 투쟁의 이면 성과와 함께 대선회의를 지도할 통일체의 부재와 정치조직적 방향이 미흡하여 전술적 목표가 노정권타도라는 선동적, 선연적 구호에 그치고

전민련과 국민연합의 한계 극복 보다 강한 조직력 가져 92·93년 민주정부 수립위해 기층대중조직 강화해야



◇지난 5·6월투쟁을 주도했던 '범대체회의', 후에 '공안통치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로 전향하였다.

정파를 포괄하면서 해방후 민권운동의 최대의 조직체로서 출범하였다. 5공정산과 광주학살책임자 처단 투쟁, 반민주 악법개혁투쟁, 미국과 노정권의 기간적 북방정책투쟁, 두개의 한국정권과 저지투쟁등을 주도해온 전민련은 각계각층대중운동의 전진에 고무되면서 한층 발전된 통합조직의 건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이 군중정치 집회의 형태로 진행되고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투쟁, 투쟁없는 집회를 이끌었고 또 민주투쟁에 대한 지원, 연대활동이 저조하다고 불수 있다. 특히 결성 과정에서 기본 강령조차 합의하지 못한 정도로 내부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이 낮아 모든 결정의 합의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집행력도 취약했다. 가입된 각 부문 및 지역단체들의 역할이 부실하여 가맹단체들과 대의원의 책임성이 낮은 집과 전민련이라는 전선체는 주도적으로 담당할 운동체가 없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공안정국이란 탄압국면에서 전민련의 대응이 현저히 떨어지자 전민련은 민권세력의 중심축으로 하되 전민련 출범 이후 잇따라 조직된 전국 대중조직들이 결집하여 '민중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을 지난해에 결성하였다. 대중조직의 결집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민연합은 반합법 정치투쟁 역량을 중심으로 한 전민련과는 별도로 분립되어 발전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강경대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민권세력은 신속한 단결과 결집을 통해 '강경대 열사 풀려남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4월 29일 국민결의대회에서부터 6월 12일 7차 국민대회까지 전국의 연인원 2백만명이 참가한 투쟁을 주도하였다. 범대체회의는 6월달이

투쟁이 하강할 때는 정치,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들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상연의 필요성과 과제

92~93년을 앞두고 민주정부를 쟁취해 내기위해 민권세력의 단결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전민련이나 국민연합으로는 92~93년을 주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연합운동의 수준에서 보다 책임성 있고 강고한 통일조직의 필요성이 민권세력 내에서 제기되어 이제 상설연합체인 '전국연합'이라는 반합법전선체 결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담보하는 세력은 정당이나 합법



◇사진은 지난89년 전민련 결성때의 모습

사회에서 군부독재와의 대결과 민중의 자주성 옹호는 선거가 아니라 4.19, 5.18, 6.10등과 같이 전국적 민중항쟁을 통해 결연이 났다는 사실을 근대 40년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인 전국적 민중항쟁은 합법정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체가 주도하기에 반합법전선체인 전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현재 민주대연합의 토대로서 자주적 대중조직의 강화가 제기되고 있다. 전노협, 업종회의, 연대회의, 노동노조 분립되어 있는 노동자 운동의 단일전선체와 전노협이 일반농민속에 뿌리내리는 것과, 전대협의 전진권선설이 그것이다.

민주연합정부 수립과정에서 대중을 이끌어 민주대연합을 추동, 전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주연합정부를 민족자주정부로 전회시키는 것을 어떻게 추진해가느냐가 이것이 전연의 과제이기도 하다.

(전국대대신문기자 연합 공동기재단)

합법전선체 상설연합체가 오는 12월 결성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통일전선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며 상설연합체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85년 노동, 농민, 청년, 문화, 종교 등 부문운동이 통합된 '민주민주운동협의회'와 '국민민주인사들로 구성된 '민주통일국민회의'가 통합되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중련)'이란 전국적 연합조직이 결성된다. 민권론은 86년의 개인투쟁에 국한되면서 성과를 쌓아왔고 계도야당과 구별되는 민중세력 대변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민중운동 역량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통전체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계도야당 운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87년 대 투쟁에서 투쟁과정에서 그 전술을 둘러싸고 운동세력이 분열을 겪게 되었을 때 비판적 지지입장을 택했

으로 사망하고 4.13호헌조치가 내려지자 '고공대열사'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기구'로 재편된다.

민권세력은 물론 호헌에 반대하는 계도권야당 세력까지 광범위하게 망라한 반독재민주연합 전선체였던 국본은 6월항쟁을 발의해 냈다. 그러나 6월항쟁과 대선의 한계와 오류는 그대로 국본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전운동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노-농-청년학생이 부수적 지위로 활동하고 야당세력과 계도야당 인사들이 주도했던 국본은 6.29 총선이라는 정권의 회유책에 쉽게 동요되어 투쟁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국본은 반파소 민주연합전선 결성에서 노-농-청년학생의 주력군이 민권운동의 주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족자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적 과제에 입각하여 그 방도를 찾지 않을때는 좌우편향을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동약로

"자유/ 학생들 말라고 왔노 우리 아들도 안시킬라카는데 덴날 공부만하느라 너기들을 우에 일 시키겠노..." 머리가 허영해 다 된 육순 할머니께서 농활을 온 여학생들의 하얀손을 잡고 하시던 말씀이다.

지난 23일 양일간 플포장 문제를 가늘건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학교 농촌봉사활동지역 경북 영일군 송림면에서는 갑작스런 2차 추계농활이 실시되었다.

"이제는 늙어서 농사지어라해도 못짓는데, 내가 칠십이었고, 할망구가 칠십이니까 옛날같이 먼 벌레 고려지어라카서 파문했을 건데 세상이 좋아졌는지 아니분 우리들이 땅을 죽을때까지 파다가 죽으라는 건지, 인자는 힘이 없어

서 농사도 못짓겠다." 대대리 한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마흔의 젊은 이들은 거의 도회지로 다 떠나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키고 있다.

죽어가는 농촌



대대리의 경우 몇년째 플포장 문제로 '플포장 건설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얼마전부터는 포항 시내 불발매들이 플포장지역의 사주를 받아 현장사무소에서 상주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

고 있어 이마를 주민들이 일순을 놓고 플포장에서 플포장건설에 반대하느라 가을경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올해 추곡수매도 7%인상이니, 전량수매도 인하고 얼마꼬지만큼 수매하면서 우리들내 바로 코앞에 플포장을 만들어 우리들내 사람들을 다죽일려고 하니 우리들내들은 우에 살아라 카는 겁니까?" 플포장 근무를 마치고 내려온 이마를 안영태(36)씨의 말이 오늘날의 농촌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쟁이에서는 늙어서 중환자병대 책이 어떻고 UR에 대한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주의의 농촌대책은 농촌을 살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살농정책이다.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으로 나오는 헛것보다도 우리농민들의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라도 더 들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않겠는가

(김윤규기자)

1992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 모집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지역개발대학원(경주)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불교학과: 불교학, 신학 ②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학, 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11. 12(화) ~ 11. 21(목) 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 및 연구과정: 1991. 11. 29(금) 13:00 본 대학원 ② 관리자과정: 1991. 11. 22(토) 14:00 17: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초계종 재학생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② 석사과정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③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 260-3097, 3098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행정학과: 지방행정, 공공행정, 지역개발, 환경행정, 인사총보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안전관리학과: 안전관리 ④ 중앙행정학과: 경찰행정, 교도행정, 소방행정, 사법행정, 사정비행정 ⑤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⑥ 노무행정학과: 노무행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11. 13(수) ~ 11. 22(화) 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11. 30(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전 ①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수입액 30%) 지급 ② 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장학금 등 장학금이 있음. ③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 취득. ☎ 260-3101, 3102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경영학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② 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③ 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④ 경제학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⑤ 전자계산학과: 시스템스,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보처리 ⑥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⑦ 부동산학과: 부동산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11. 25(월) ~ 12. 4(수) 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12. 7(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영어, 논문, 면접 ② 연구,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전 ① 해외 재대학생의 연수참가 기회 있음. ② 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분교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음.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동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260-3105, 3106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② 교육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문헌, 체육, 영어, 물리, 가정, 전산, 종교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11. 21(목) ~ 11. 29(금) 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12. 7(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교육학) 및 면접 ② 연구과정: 필기시험(교양) 및 면접 5. 특전 ① 우대전형: 총동맹고 현직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장차사, 연구사 등 ② 장학금: 공무원, 교직원 및 조계종 재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③ 특전: 교원자격 검정기출 예상자는 졸업후 중등2급 교사 자격증 발급 ☎ 260-3109, 3110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정보전산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②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편집 ③ 신문출판학과: 정보통신 ④ 산업개발학과: 산업공학, 산업개발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11. 25(월) ~ 12. 4(수) 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12. 7(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및 논문, 영어), 서류전형, 면접 ②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컴퓨터, 전공, 신문방송학) : 논문,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개론, 산업개발학과: 산업공학개론 5. 특전 ① 현직 인문인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② 공무원, 교직원, 군인, 국가산업체 종근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③ 재학생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④ 학과지원은 출신대학 전공학과에 관계없음. ☎ (0561)2-0141~6교합263 직통 (0561)41-4131 경주캠퍼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기타 자세한 것은 것은 각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심상치 않은 일본의 신군국주의

일본은 지금 '제2대동아공영권' 건설 중

정치군사적 대국화를 이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는 일본에 보수우파의 행보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2차대전의 패망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특수에 힘입어 경제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일본은 전후 46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제1의 해외자본 투자자, 세계 제1의 대외채권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경제규모에서는 미국, 소련에 이어 3위이지만 실질 경제력에 있어서는 가장 내실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의 전후 '번영'을 이끌어온 자민당 등 보수우파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대국화를 추구하게 하는 기본동태가 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제2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다.

이와같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대국화 움직임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서방선진공업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지난 70년대부터 그 싹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그 밖의 정치적 모습은 보수화물질이 서방세계를 휩쓸던 80년대 초반, 유방한 나카소네 극우정권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을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상시킨다는 이른바 '불침항모론'이 나온 것이 바로 이때의 일이다. 나카소네 이후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는 1987년에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 1976년 이후 삼각적 마지노선이라고 일컬어지던 '군사비'의 GNP 대비 1% 선을 넘어선 것이 이때의 일이다. 그 이후 일본정부는 군사비의 신장방식을 총액추진방식으로 하여 그들의 가속적인 군사비증액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군사비증액은



미국과 소련에 비하면 7분의1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해를 고비로 하여 미국, 소련의 군사비가 감소되는 추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비규모는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제3위이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인 중국과 남북한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이와 같은 군사비규모는 현대군사문명의 특성상 다른 모든 요인에 앞서 군사력을 결정짓는 제1의 요인이다. 이미 발달한 첨단산업의 덕으로 전자전의 수행능력에서 세계 제1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은 막대한 군사비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 수입국이 되고 있다. 걸프전쟁조차 일본의 하이테크가 없었으면 미국이 승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오

군사비 규모 세계3위... 계속 상승 추세 경제력 우위로 '아시아 잠식' 노려

역의 강제정착 포함).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무려 100여만명일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시의 잔악한 죄악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의 '청구권 자금' 3억 달러로 "모든 상항 끝"을 임박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일본내의 각종 군수공업에 강제 적용된 한국인들중 일부의 미봉금 1조 5천억엔에 대한 지불분쟁에 피해자단체 등의 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이에 대해 아직 배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걸프전쟁 종결 이후 일본은 연습이 아닌 상태에서 최초로 해상자위대를 페르시아만 지역에 파견하여 전쟁활동과 같은 것인 해상 지뢰제거작업을 벌이고 있고 오는 11월의 일사국 회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라는 명목으로 북

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계속되는 일본 정상의 순방 외교와 해외투자자본의 3분의 2가량을 이 지역에 쏟아붓는 경제력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 중심의 북반구 경제권, 독일 중심의 유럽경제권에 대항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과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정치무대에서는 유엔안보회의 2차대전 이후 그를 기반으로 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로의 등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내 보수우파의 기도는 일본내 전반적인 우경화 현상과,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아.태지역에서 일찍이 역할을 즐겼던 미국의 의도와도 맞물려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정황이 50년 전 군국주의의 야심으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퍼피던 내내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한 피해는 엄청난 피해자 수만 해도 무려 800여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국제 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합시다 다시 생각해야 할 '성과 사랑'

우리 시대에 있어 사랑이란 명제는 아직 유효한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성폭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화된 성적 괴롭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상품으로 포장되어 공평한 여성들, 이런 인스턴트 성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자기분열을 자초하는 남성들, 이를 조장하며 몰아치는 거대자본과 정치권력,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짧고 짧아 질레조각처럼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고민을 바탕으로 인간적 삶의 양식을 담은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실천해나간다는 동인들의 모인인 '또 하나의 문화에서 (새로 쓰는성(性) 이야기)'가 발간되었다. 동인지 7호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에 이어 발간된 이 무크지는 사랑과 성을 주제로 일어나는 인간에 의한 인간억압과 소외,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인간존엄의 해체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랑은 상품을 팔기 위해 가히 전체적으로 꾸미던 광고문구들이 훑쳐 쓰이고, 억압자들이 억압을 은폐하기 위해 버려지고, 약자를 속이기 위해 쓰여지며, 어떤 사람

들리든—무엇때문인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자신의 존재와 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는 새로운 신화와 우상을 등장시킨다. 이 시대의 최고가치(?)이며,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란 이름 아래 도착화된 것이 '이성'이요 '사랑'이다. 또한 사랑과 성에 대한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과 그런 생각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무수한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욕망에 어떻게 참여해 왔음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사랑관으로 사랑을 하기에 지랄해오만 하는 인간성의 상실을 해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우리자신의 이중성을 성찰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지레짐단인 자본축적자를 목표로 타인의 노동력을 거둬 집업이 취해왔었다. 정치적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와 성, 그리고 온갖 문화적인 마약을 집중적으로 퍼뜨려 왔으며, 이 와중에 성은 상품화될대로 상품화 되었는데는 점을 자주 성토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적 공간에서 바로 그

시대와 타협해버린 잘못된 사랑관 인간성회복으로 정겨운 사랑을 되찾자

을 이용하고 소유하기 위해 미화해서 쓰는, 그래서 경제해야 할 어귀가 되어 버렸다. 이 사회의 이중적인 윤리규범 속에서—공공연한 성상임주의와 성범죄가 걸림을 수 없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간통죄라는, 순결과 같은 성에 대한 억압기제가 존재한다—성이 왜곡되고 뒤러린 형태로 물신화되어 난무하고 있다. 결국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창조한 성과 사랑이라는 문화적 구성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사랑과 성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사람들을 패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에 공동체적인 뿌리를 내리려는 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음을 절감하는 데서 이 책의 문제제기는 시작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본성의 과제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는 왜곡된대로 왜곡된 성과 사랑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이다. 거대한 억압의 복합사회,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방향갈라를 잃고 자아분열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 방향의 외로움을 달래고, 혼

린 체제를 지속시키고 심지어 강화시키는 기제를, 곧 소유적이고 패체적인 이성애, 거부장적 제도로서의 결혼, 그리고 집착적인 성에 대해서는 집착해 왔음을 이 책은 예리하게 지적해내고 있다. 다시말해 객관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도의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타협적 선택의 괴리 큰 위선의 사치를 낳고 계속시키는 주요고리이며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에게 갈등과 혼란을 주어왔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동성적인 주권의 행사와 서로에게로의 용화,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의 상호침투, 상승작용'이라 규정해본다면 어떨까. 이뿐만 아니라 사랑과 결혼은 어느 한 성이 다른 한성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소통방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기초가 허술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집을, 새로운 창조해왔는 지, 자포자기한 삶, 또는 순간의 흥분을 찾아 헤매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뿌리박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따듯하고 정겨우며 유쾌한 성을 다시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다.



◇선거운동원들의 하루는 바쁘지만 하다. 사진은 제23대 총학생회 선거때 기호1번 선거운동원의 모습

◇제2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일 계속하세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하는 운동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료수등 먹거리를 준비해온 한 학생들과 오우9시에는 그날 하루의 평가와 반성을 서로 토론하는 중례로 하루가 마감되죠"라고 선거운동원의 하루일과를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문선대는 지금 곧 공국관으로 출발합니다. 선전팀은 선전대자보 작성 끝났습니까?"라는

기호보를 제작작업도 힘들어졌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가장 많은 얘기로는 유세, 선전활동 외에 보다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행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한다.

또한 이군은 "예년의 20~25일에 이르던 선거기간이 올해는 실제로 9일정도 뿐이어서 기존 학생회의 평가와 이후 대안을 내기위해 보다 폭넓은 학우들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우보자측에 플래카드와 전단 등을 공동제작해 준것은 과연 선거 방식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선거의 생명은 참여입니다"

생의 목소리에 그쳐서야 사람들은 하던일을 잠시 놓고 난로가 되며 열기 시작했다.

"아침 6시부터는 조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조희시간에서 그날 하루에 할 일을 할당받고 저녁9시까지 각 단과대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설명한 황준기(분교4)군은 유세를 앞둔 지금이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장 바쁘다고 말한다.

지난8일 공대내총회에 위치한 기호2번 이광진·윤은순 선거운동본부 역시 문선대 노래공원의 최종연습에 열중인 사람들과 선전홍보물을 제작하는

목소리와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야흐로 선거가 결정기임을 말해주었다.

14일로 예정된 선거투표를 위해 조직을 문선대, 선전대, 중앙본부, 편집팀으로 나누었다는 선거운동원 이혁진(철학3)군은 요즘은 날씨가 추워 매일 20~30명씩 하던 철야 선

군·행정병 모집

1. 고졸이상 17-26세
2. 행정주특기 900 부여
3. 1월-12개월 매월 단독입영
4. 6주 훈련후 실근무 배치
※사회원 주의

735-2323
735-9716

女事務

秘 塔 經 書 理 O.A

워드프로세서
여성·여교·초·대졸
단기교육 책임취업
(재학생 수강료할인)

732-3375

무로 TOEFL 강좌 실시

당신도당신이 원하는 미국·유럽의 일류사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생애를 하나의 기적으로 당신의 가운을 명문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현재에 유학할 수 있는데도 원망없이 유학을 포기하고 학위과정의 재외국에 생활할 수 있으면 정말로 후회 없이 되었고, 앞으로 대학과정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기꺼워 붙잡아 준 상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외의 언어 신보회는 바로 당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비록 비싼 것이지만 성공의 기회입니다. 전국의 일류 12 대학의 영어도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 줄 것입니다.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층적인 학습전략
Strategic For Successful Learning

1. 복고 토익(TOEFL) 550점 이상
2. 우선순. 1차 중 1-2-3 과정
3. 2차 고 1-2-3 과정
4. 3차 이계제 TOEFL 과정
4. 4차 5점 이상의 TOEFL 성적 달성

3. 재회: 1. 중·고 과정정기(5개월)
2. 독해 및 어휘(이계제 TOEFL)(6개월)
3. 선전 TOEFL 문제정(1개월)

4. 선 회: 중앙외국어 신보회에서

후관 중앙외국어 신보회
후원 (관인) 시사학원
TEL: 814-3493
824-2147

第7回 全國 大學生論文 懸賞公募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시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금융시대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다짐하는 저희 신한은행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 7회 전국 대학생 논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립일: 1982. 7. 7.
- 은행종류: 일반 은행
- 자본금: 5,160억원
- 총수입: 5,196.969억원(1991. 10월말 현재)
- 영업장: 국내 109개소 해외 7개소(1991. 12월말 예정)

응모요강

1. 자격
● 오모마감일(1992. 5. 30) 현재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응모논문 (아래 논제중 택일)
1) 世界經濟의 Bloc化: 韓國의 對應戰略은?
2) 中小企業 國際競爭力: 그 強化方案은?
3) 急變하는 金融環境속의 銀行: 앞으로의 進路는?
4) 教育制度, 어떻게 改革 改訂 것인가? — 先進經濟社會를 指向하여 —
5) 技能人材 不足難: 教育訓練 制度의 改善方向은?

3. 응모마감일
● 1992. 5. 30(토)
● 응모자: 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해

4. 당선작 발표
● 1992. 6. 30(화)
● 당선자 개별통지 및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표

5. 상 금
● 최우수작: 1편 이내 300만원
● 우수작: 2편 이내 각 150만원
● 가 작: 3편 이내 각 80만원
● 입 선: 5편 이내 각 40만원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의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0~30매 내외)
7~8매 정도의 요약본 첨부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
● 제출처: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및 지방소재 점포

7. 특 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입상자는 당행 임명지원시 필기시험 면제 특전 부여 (단, 당행 제반 채용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8. 기타
● 응모작 제출시 원문 성함 및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중명서 1통을 첨부함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소유인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 또는 문의함 것. (전화번호: 756-0505 교환 3040, 3041)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기획취재 현시기 학원자주화투쟁의 과제와 전망

대수술 받아야하는 만성병 '재단무능'

1. 다시 제기되는 학자투

'민족동맹'은 우리학교를 일컫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1906년 당시 '신학교운동'을 전개하던 홍원초 등 선각자들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인재를 육성코자 불교계 정세를 모아 동국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세운데에서부터 비롯된다. 민족대학으로의 재출발은 명진학교이후 1945년 해방전까지 두번의 강제폐교(중앙학원-1922년 3-1운동후로 총독부에 의해 강제폐교, 해방전-1944년 5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폐교)로 상징되는 흥망을 거치면서 민족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적·물적·재정적 여유가 들어서고 이에 발흥은 미국세력과의 결탁한 일부 불교인들의 파벌싸움에 민족대학의 이념은 날로 퇴색하여 갔다. 재단은 비구-대처 분규과정에서 비구승에 의해 장악되어서도, 관선이사회의 정경의 우여곡절속에서 오늘날의 무능 재단으로의 내림길을 달리게 된다.

내림길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대학으로 융비하던 본교가 날로 그 교세가 침체되고 학풍이 퇴조하는 것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학선의 재바람을 일으키고 동국의 자주적 중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 지난 1988년의 학원자주화투쟁이다. 당시 1백36일간의 본관점거농성과 연일수천명 학생들의 집결, 교수직원들의 동참에 따라 대학운영의 구조적 모순을 학생, 교수, 학교당국의 3자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체제로서 사립대학의 모순을 혁파해서 대학을 구제했다. 이것이 89년, 90년, 91년을 학자투의 공백기라 말하는 것은 학원내 재주체들의 자주적 혁신의지를 모자라지 못하고 학생 대중들과 유리된 재주체간의 자의적인 정책결정, 방도없는 목소리 높이기식 학자투였다는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개악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학원안정화정책과 학생회담에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데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학원의 권력구조가 총장에서 재단이사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황철교수들의 재입용탈락과 같은 교원단위 행위를 자초했다.

91년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학원의 모든 힘이 재단에 집중됐다. 재단은 교수 직원의 일면적, 예결산권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대학내 모든 권한의 독점자로 돌변했다. 황철교수들의 재입용탈락에서 학사제적부활, 최근 다수이사들의

유입에 이르기까지 재단의 무능을 위는 추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의 95%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이사직은 수년씩 연임하는 것이 재단의 현실이다. 이런 부실한 재단과 학교발전의지가 미약한 이사들로 동국발전의 기대가 아니라 합리적 학원운영을 맡기는 건 무리이다. 오히려 학원을 세력다툼의 장으로 만들어 교세를 위축시키고 학원의 자주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에 학내의 양

이사가 등장했던 이시기, 불교계의 원로들이 교세침체를 물론 민족대학으로의 순결함까지도 박탈을 당한다.

한편, 관선이사회의 퇴진이 이루어진 1975년 재단이사회는 조계종 승려와 동창회측 인사3인으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건국 초기 불교계 선각자들이 활할랄, 두말을 현사해 건립한 민족대학이 일부 승려에 의

립학교법개악과 더불어 재단의 권한을 대폭 신장시켰고 정치권력이 이같이 재단전환을 부채질하는 근본 요인을 재단개편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인용, 면적에 관한 전권을 재단이 이양받았다. 또 교수와 대학 노조, 학생회와의 자주 활동에 간섭(학자투적 부활등)하며 예결산권도 장악하고 있다. 현 재단이 사들이 대중적 기반과 재력이 없음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학자투는 학우 대중이 생활권인 학원내에서 스스로 삶의 주인체로 자각해 나가는 투쟁이며 나아가 사들의 주인으로, 민족의 주인으로 발전, 승화시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학생운동의 기본동력은 청년학생들의 현실상황과 사회적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온다. 학자투는 이러한 현실 상황과 조건에 주동적 투쟁이다. 학생대중이 직접 현실에서 부딪히는 생활적 처지, 조건들에 대한 자각을 이루고 이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전사회로 그 지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주화이다. 지금까지 학자투가 무슨 이름을 내걸었든 결국에는 대중주체의 대중운동이라는 정치투쟁의 선명단계로 한정되었음을 실감하게 반성하고 지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엄밀히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위적이고 추종적이거나 선제공격으로 제기되는 학자투는 건부와 대중간의 관계를 극히 왜곡시키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건부주체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책임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복원 이사장과 김자우 사무처장이 재단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2월 이사회때 모습.

학원자주화투쟁은 학생대중의 현실 상황, 이해관계에 근거, 학생의 자주적 지향을 고부, 집결하여 학원의 주인으로 서게하는 재단 투쟁을 의미한다. 민족대학이라 자부하는 본교가 88년 학원자주화투쟁을 통해 80여년의 긴 침체에서 떨쳐일어나 20대 총장이후 올해 23대 자주적 총장생까지 학자투는 단절과 공백의 긴 시간을 보냈다. 11월중의 재단 이사장선거가 갖는 학원내 권력의 재편이란 중요한 시간과 함께 92, 93년 권력의 재편을 앞두고 학원안정화대책을 일련의 학원안정에 맞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래의 선 재단혁신의 과제와 학자투의 올바른 관점 정립을 위하여 현 재단을 둘러싼 상황을 알아보고 92년 학자투의 전망과 과제를 알아 보고자 한다. (원필자)

재단혁신의 인적-물적토대 구축이 선결과제 '민족대학' 정신살려 승가-동문까지 연대 모색

심적인 승가,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의 동국 자주화이지야 말로 재단혁신의 첫걸음을 디딤할 나위 가 없다.

재단의 재정적 허약성 또한 이를 운용하는 이사의 문제에서 찾게 된다. 동양초대의 부당산을 사학계적으로 오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산원수와 수령장 영수증의 차이가 단지 전입금으로 들어 올 뿐,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병행전입금도 재단 밖의 부자도 등록금에서 영입하는 고순까지 뺐고 있다.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총 9백35만7천9984평 중 99.7%인 9백33만2천4백36평(89년통계)가 남아있어 활용실적은 타대학이 사립학원인데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 형편없으며, 활용방안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89년 등록금 투쟁당시의 재단활성과 추진력, 재단재산특별위원회등이 재단외에도 했으나 재단의 무능의한 태도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학자투의 양대과제인 인적-물적 토대혁신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소위 6·3의대 정권식충리리 분변사건이후 학원에 가해지는 탄압은 사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이는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최대의 보호막이다. 결국 재단은 대학에서 재정, 인사, 제도 등 모든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학원의 권력구조는 기존의 총장중심에서 재단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재단에 대한 혁신이 향후 학자투의 근본과제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것과 같이 재단은 조계종내부속의 지위변화, 재정적 허약성, 정치권력의 비호속에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재단혁신의 과제는 학원내에 모순의 뿌리가 재단에서 연유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92, 93년 권력개편의 정치격변과 11월 재단이사장선거시기에 모든 학내의 주체들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관점을 잡아 나가는 것은 학자투에 있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그동안 학자투의 공백이 있었던 것도, 복지에만 매달리는 편향된 사고도 역시 학원자주화 투쟁을 옮겨 이해하지 못했던 기인하고 있다. 88년 후 진행했던 학자투 내용중 첫째 유류는 자주화의 관점을 오인해서 온 것이다.

이제 88년 학자투이후 위축된 학자투대상을 정비하고 그간 축적된 이론과 사상으로 동국학원내에서 대학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세력을 일소하여 명실상부한 민족대학, 자주 재단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원자주화의 주체들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승가의 연대를 폭넓게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혁신투쟁을 벌여야 한다. 재단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 중 단과 내본을 적절히 이용, 재단내 부정부리, 무능이사들을 축출하고 민족대학에 적합한 양심적이고 재력있는 이사들을 영입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능이사퇴진, 양심이사영입이 성공하면 이를 발판으로 재정적 토대가 될수 있는 봉헌사부지적금영입, 동국발전기금모금등으로 물적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92년 학자투의 과제는 재단혁신이다. 곧 있을 11월이사장선거를 자주학원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철우 기자)

◇타대학 재단투쟁 사례



사람학교법 개악이후 재입용탈락 교수31명, 재단의 사립대학 발전계획과 실질적 투자 전무, 교직원 무단해고등 파벌적 학사운영.

현재 이러한 재단정포가 문제돼 학사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50여개에 이른다.

특히 재단투쟁에 있어 각 대학은 교수·학생·직원등 학원3주체가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스승제적 투자 전무 스대학 발전계획 부재라는 재단의 학교발전 무관심에 대한 학원3주체 연립하는 학내 자주체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행동표출로 해석

재단투쟁에 학원3주체 공동대응 대학발전 외면하는 학사운영이 원인

간다.

결국 13년동안 성대를 주물러 온 방방은 교수·직원·학생의 '재단퇴진'요구에 11일 이동녕이사장등 '봉명3부자'가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성대에서 손을 뗐다.

현재 성대 각주체는 이후 학교 운영대안으로 스대학원3주체보장 스승제적 투자를 확실히 할수 있는 재단영입 스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운영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29일 정주영 원대그림회장의 '성대인사'시사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학장·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수업전거부, 행정기구 정거가능성에 돌입해 학사운영이 마비상태다.

지난달 6일 교수회는 스대임사 이사장에게 합의한 '기부금채용(10억 상당의 토지매매)사건'과 재단 이사장의 대학원학회 회장직을 맡은 뒤로된 지난달 '대학원총학생회장 후보자 선출조작사건'에서 비롯한 재단혁신투쟁은 현재 배태준이사장, 박영희학장 퇴진에 집중되고 있으나 스대사외계 스대총학생회 발전추진위원회원 구성이라는 재단체제 개선을 요구로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달 6일 교수회는 스대임사 기부금채용의 전면백지와 스대임사 부채를 이사회에 요구했고 임부사사건이 비화되자 배이사장은 공백한 변명을 하며 기부금 채용을 전면 거부했다.

그러나 이사건과 관련, 학내 각주체가 강력히 반발하자 대학 예산요청으로 산하 전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학장·이사장 퇴진을 결의했으며 운영이사회도 28일 전권위원회 결의사항을 의결해 오는 11일 열리는 재단이사회의 최종해결결정 여부에 총신대의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총신대 총학생회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수업거부·정거농성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사회가 해임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유급사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재단투쟁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학내 각주체는 내부적 사실, 재단정포가 만연한 학사운영을 우려하면서 대학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몇몇년동안 변화하지 않은 자기대학의 모습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동국학원은 본교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직도 명진관 수업거부, 행정기구 정거가능성에

11월의 문화달력

11월에, 대학은 나이를 먹는다.

대학은 11월에 성숙해진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정 곳곳에 남겨진 발자국 위로, 낡은 한일 뒤엎어내고, 우리들의 추억도 함께 묻혀갑니다.

일년을 정리하는 사람들 - 사년을 뒤돌아보는 사람들 - 모두들 아쉬움과 내일의 기대가 섞여 버린 가슴으로, 김을 더욱 재촉합니다.

대학은 11월에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자라납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생활을 알리기 위해 현대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문화 달력입니다. 문화 달력은 문화 달력입니다.

내용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 있으면 행사 전일 25일 까지 현대그룹 문화 달력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746-3325, 4474(주선) 생활팀 5층 440-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획좌담 제24대 총학 입후보 자들로부터 듣는다

▲사회=선거운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제24대 총학생회 같은 경우 92-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곤=지금의 시기는 92-93년을 맞이하는 '전환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혼란되지 않는 과정속에서 이후 92-93년 권력재편기를 올바르게 이끌어 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이광집=학생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했을 때 동학의 입만학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자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학생회가 학우대중들과 괴리된 모

이제 학생회는 학우들의 생활공간입니다

◇참석자
기호1번(정) 조한곤
(부) 홍정의
기호2번(정) 이광집
(부) 윤오순
사회 = 남철우(본사취재부장)
일시 = 1991년 11월 3일
장소 = 본사 주간실

기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학우들을 추동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던 우리의 한계들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리고 우리가 92-93년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할 투쟁들을 얼마만큼 양후보 선출본속에서 단지 선거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추동적인 투쟁으로 맞이해 나가는지, 또한 이것이 11월 민중대회를 투쟁으로 맞

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92-93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간부들의 일일단결의 기운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동시에 광범위한 학우들의 단결이 필요하며 정치적부분에서는 상설연합을 중심으로한 제민주주의의 단결을 끌어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민주대연합을 이뤄내는 것이 92-93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의=먼저 지난 5-6월 투쟁을 평가해 보면 지난 87년 6월항쟁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의 조직화된 대중들이 중심이 되어 싸운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87년 이후 계속된 투쟁의 과정속에서 우리는 식민주의와 전제정권을 계속해 내려는 미제국주의에 반대했을 뿐더러 말로써만 외치던 민주화가 아닌 민중들의 제반민권,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내는, 그러한 정권

의 주내용으로는 제헌헌법투쟁과 대교육부부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헌헌법투쟁부분에 있어서는 제헌의 무능과 부패를 격렬히 나가고 이것들을 통해서 학원의 제 주체로서 학생과 교수, 각 주체들이 나름대로 자기위상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 교육부부투쟁으로는 학원안정화정책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안정화정책에서 학원의 안정화 책동들을 바라보았을 때 학자부 또한 학원이 이렇듯 식민주의 조국속에서 가지는 굴절된 모습들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가 자기본연의 활동을 해나가는 속에서 청년학생이 가져야 할 활동부분 - 전리탐구활동 - 을 담고내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학생회속에서 학자부가 가지는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집=학원안정화투쟁과 정치투쟁은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학생회사입속에서 남한대 모습들은 바로 현정권에 있기 때문에 학생회사입속은 현정권을 타도해 나가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우들 개인이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건설하고 학자부부분과 정치투쟁부분들을 명확하게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매시기를 쟁쟁한 투쟁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조한곤=자주적 학생회의 사상적인 측면들을 강화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간부들의 주체활동에 정제화해나갈 학우들과 함께 뛰는 것이 같이 자리 매김해야 한다고 사고했으면 합니다.

민주대연합 구축으로 민족자주 정권 수립의 토대 마련

이 우리들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부 정했습니다. 민족들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족들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뤄내야하고 이것은 조직화된 여러 제야단체나 기층 대중조직을 통해 의식화, 조직화를 할 수 있는 과정속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특혜에 반대하고 예측과 굴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들의 대대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내용을 충실히 담고있는가 했을 때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설연합은 전민중의 투쟁지도부, 그리고 5월투쟁의 성과물을 이어 받아서 만들어낸 지도부임이요 이것들은 정말 투쟁을 하기위한 정치사범부 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호2번이 내년의 전망들을 보는 것들속에서 명확히 틀어 쥐고자 하는 원칙은 한 마디로 표현했을 때 '보수야당의 머슴살이, 아니 민중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과 보수야당의 머슴살이를 거부 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 이를 터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자주정권은 민족의 자주적인 정권인 동시에 민중들의 이익을 담보하는 정권이기에 이것이 바로 민중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집=실질적으로 92-93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면서 토대구축과 창설이라는 부분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지금의 대립 구도를 민주적 반민주세력으로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저같은 경우는 민중정권대 보수정권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보수야당을 높고 보면 예전의 87년 6월 투쟁에서 특혜라도, 호헌표현할 수 있는데 전환기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전환기라면 사상적 혼란이나 그시기에 살아 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일정정도 혼란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환기속에서 명확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고민들을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내면적인 삶의 긍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선별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원내에서의 정치투쟁이라든 학원자주투쟁이라고 생각하는 데 호헌을 요즈음 학생회를 평가하면서 90-91년도들 학자부의 공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11월 중순경 진행된 제헌시각 선거를 놓고서 제헌헌법투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학자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정의=원시 제헌헌법투쟁에 대해서 학내의 제반 민주세력이라 지칭되는 학생, 직선노조, 평교직원들 모든 세력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은 자전이나 율해와 같이 학자부의 내용들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으므로 봅니다. 지금대학에서 소모하는 것은 학원자주투쟁을 벌여 나가는 맥락속에서 이번 제24대 총학생회를 맞이해야 하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헌헌법투쟁의 과제를 가지고 보다 폭넓은 학우대중과의 단결을 통해 투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곤=원시 학원자주투쟁

년도의 정세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선거투쟁을 보코적으로 대중투쟁을 주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홍정의=학생회의 선거는 기성 정치판처럼 돈과 인맥에 의한 것이 아닌 학우들에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학우의 심판을 받는 것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호 2번선출운동에서 공약사항으로 문제제기한 내용들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가 요구되어 집니다. 92-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라는 점에 대해서 일민동약인과 함께 공유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순=92-93년의 정세를 한 마디로 표현해서 '민중정치의 세시대로 겹쳐져서, 이제 우리는 더이상 머슴살이로 살아가는 안된다'로 강조하고 싶고요. 정책성과 투쟁하는 선거를 이루어내기 위해 선연의 시대에 총지부를 찍고 실천하는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바쁘신 시간 중에도 좌담회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양후보전경 모두 '동공사랑'이라는 기본적 대의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정리=조인환기자)



정 조한곤

승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투쟁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패쇄된 간부들의 학생회가 아닌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학생회를 건설하고 그속에서 힘찬 단결의 토대를 구축, 92-93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사회=우리가 흔히 선거를 열려진 대중투쟁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권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있듯이 각 권의 선거시기만 되면 학생회의 이완·마비등의 안습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민중 선거가 대중투쟁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방도로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정의=선거는 한해 사업을 올바르게 평가해 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의 전망들을 내세우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번 선거가 우리가 입상 학생회사입속에서 이어갔듯이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체로 내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원시기 단계에 학생회가 거의 이완되거나 마비된 실정인데 무조건적으로 단계에 학생회의, 총학생회와 집결을 제기하기 보다는 총학생회의 정치적 지도력을 보다 높여내고 이것을 단위 선거운동본부속에서 오는 11월민중대회, 12월 미부시대통령 방문을 매시기를 투쟁을 준비해서 학우들을 투쟁의 장으로 발동시켜 내야 합니다.

▲윤오순=선거가 해마다 있는 연례적인 행사로 치루며 마지못해 참여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인 이유를 파악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는 전반적인 내외정세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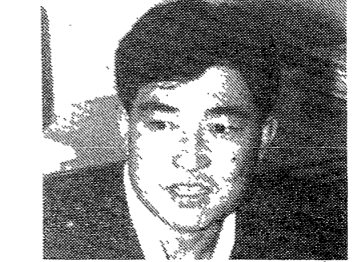


부 홍정의

이하자는 구호 차원으로서가 아닌 실제적인 투쟁체제를 명확히 학우들에게 제출해 나가는데, 바로 이것이 무관심과 학우들이 학생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작은게나 큰 단결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회=우리가 흔히 선거를 열려진 대중투쟁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권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있듯이 각 권의 선거시기만 되면 학생회의 이완·마비등의 안습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민중 선거가 대중투쟁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방도로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곤=92-93년 권력재편기를 맞이하는 91년은 일정정도 우리가 민족자주정권을 지향하는 시기입니다. 민족자주정권은 92-93년에 당장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정권을 이루게 할 진솔적인 방도로서 민주주의도 민주대연합 즉 민중연결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이 갖는 의미는 92-93년을 승리하기 위한 토대구축이라고 봅니다. 이속에서 민중연결의 큰 흐름속으로 다가왔던 것이 소련사태인데 일정정도 파장을 컸습니다. 이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방식으로 우리의 것을 모범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해 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많이 다루어진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기는 정치적 전환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환기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전환기라면 사상적 혼란이나 그시기에 살아 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일정정도 혼란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환기속에서 명확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고민들을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내면적인 삶의 긍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정 이광집

▲윤오순=88년 당시 새바람을 일으켰던 학자부부터 현재목전에 두고있는 제헌헌법투쟁에 이르기까지 돌이켜 보았을 때 학자부는 한마디로 '원칙없는 배신'이요,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변화왔던 이권과 굴절된 모습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관성에 젖어있는 것처럼 학자부가 하나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싸움이 아니라 정확히 원칙과 방향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남한사회에서 학원자주투쟁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회=이번 제23대 총학생회의 사업을 간략히 평가해 주십시오.

▲윤오순=솔직히 전 자주적 학생회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하고 일상적인 이해와 요구까지 받아안으면서 내가 진정한 학생회 주인이라고 강조한 자주적 학생회의 오류점은 많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의 가장 커다란 경이면서도 또하나의 투쟁의 장인 선거속에서 실제로 학우들은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어디서

부터 기인한 것인가? 자주적인 학생회의 성과로는 무엇이 있으며 다시한번 비판,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 제23대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조한곤=상반기 등록금투쟁이나 4월강경대열사건, 5-9, 5-18을 진후로 한 투쟁의 열기속에 학우들이 분인토의를 거치면서 일정정도 실천을 해내었다는 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올해 총학생회가 과학생명의 자주화를 강화시키기 했지만 단과대학생회가 과학생명을 내용적으로 지지·지원해주면서 총학생회로의 집중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단과대학생회의 위상상징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내용과 모범단위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문제에서 주체활동의 고민이 비효율한 요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기의 제헌헌법투쟁 또한 약간 미흡하지만 이는 제24대 총학생회의 사업으로까지 전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회=이런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하는 단결의 정으로, 투쟁의 정으로 자리 매김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으며 이후의 결의들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집=학원안정화투쟁, 새로운 실천을 통한 행동하는 학생회의 공간속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속에서 매시기를 쟁쟁한 투쟁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조한곤=자주적 학생회의 사상적인 측면들을 강화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간부들의 주체활동에 정제화해나갈 학우들과 함께 뛰는 것이 같이 자리 매김해야 한다고 사고했으면 합니다.



부 윤오순

콘택트렌즈 단백질 제거와 세척을 동시에 -부드러운, SPC 액

중외제약

“비교해 보세요. 훨씬 경제적이예요.”

세척제와 단백질제거제를 따로 구입하는 것과 SPC액 한병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까요?

콘택트렌즈 관리용 제제로 하려면 1일 1회 세척과 1주 1회 단백질 제거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백질 제거제와 세척제를 따로 구입하느라 부담스러우셨죠? 하루 한번 세척으로 단백질까지 제거하는 SPC액 / 세척제와 단백질 제거제를 따로 구입하는 부담이 없고, 시간도 절약되므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SPC액 경제성 비교표	
세척과 단백질제거 별도시 경우	SPC액 사용 경우
● 세척액 1,500원 1병	● 단백질 제거와 세척을 동시에 매일 실시 1병, 2개월 사용시
● 단백질 제거액 1주 1회, 1,000원 (1회 × 8주) = 8,000원	● 합계 : 5,500원
● 합계 : 9,500원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올바른 관리법

1. 세척 렌즈에 묻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매일 세척과 항균을 해야 합니다.
2. 소독 : 렌즈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수 소독이 필요합니다.
3. 단백질 제거 : 콘택트렌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1주 1번 단백질 제거를 꼭 해야 합니다.

SPC 액 에스피씨 액

권장소비자가격 : 1병 5,500원 / 2개월분

지점·사업소 상담실

- 본사 : 841-1212 (교283, 284)
- 북부 : 968-1332 ~ 4
- 인천 : 83-4197, 7564
- 수원 : 39-6220 ~ 1
- 부산 : 531-7575 ~ 9
- 마산 : 55-2256, 8161
- 대구 : 354-5671 ~ 3
- 광주 : 528-4806 ~ 8
- 전주 : 254-3038, 77-0209
- 대전 : 621-5981 ~ 3
- 청주 : 57-1751
- 원주 : 42-0401
- 제주 : 52-5905

◇91년 민중미술운동의 흐름과 전망

‘사진’의 형상화 차원 넓고 질적발전 추구할때

91년도 민중미술운동은 강경대의 타살 사건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한 다. 강경대의 타살사건과 미술운동의 확대는 이미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광장미술, 장례식 시가메체 운동으로 나타난다. 장례식의 시가메체로서는 우선 영정 그림을 붙수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열사부활도, 안장, 만장그림 등이 제작된다. 뿐만아니라 장례식장 전체를 시가메체를 활용하여 하나의 형식을 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일례로 장례식 입구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전체를 검은 천으로 장식하여 장례식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강경대의 장례식 경우 식각 뒤를 대형 검은 천으로 장식한 것을 볼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장례미술이 가장 집적적으로 나타난 것이 91년도 미술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강경대 이후의 계속된 분신과 투신자살사건은 민중미술운동은 장례미술로 한정지을수 밖에 없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금의 미술운동의 상황과 과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문제의 설정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미술운동에서는 작품의 질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미술대중화에 대한 관심의 변화와 동반한 것으로 매체운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화운동, 만화운동의 확대에서부터 시작한 미술운동은 미술의 대중화를 가장 주요한 미술운동의 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체로서 판화와 만화를 삼정하였다. 대량복제와 대중이 직접 창작할 수 있다는 판화, 만화의 특성은 민중의 삶의 미술,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미술매체를 발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매체운동의 확대는 한편



◇민중미술운동의 한 단면인 '민중미술연구소'의 정기모임 모습. (가좌동 소재) (가좌동 소재) (가좌동 소재)

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민중미술운동은 지난 10여년동안 미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에 따른 선진매체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미술의 이념과 방법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왔다. 그러나 현재의 제반문제들은 다시금 민중미술의 이념과 방법들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와 자본주의 문화논리인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은 민중미술에 대한 논리적 문제와 그 방법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것이다. 미술운동은 지금의 제반문제들을 조직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직적인 노력은 많은 부분 당국에 의한 정치적 탄압으로 좌절되기도 한다. 지난 '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의 평양출판 '민중미술운동' 슬라이드 반입에 따른 대량 구속과 간첩죄 적용사건, '서울민중미술운동'에 대한 대량압박과 불리취지는 이적단체 적용 철회된 구속사건, 신학원 '모내기'작품의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사건 등 수많은 탄압이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의 민중운동은 조직이 갖는 힘의 최대치에서 제반문제들을 바라보는 실천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다시 진행되는 미술운동의 조직적 문제에 대한 제기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전국적인 미술대중의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91년 김기영 장례식에 보였던 설치미술의 힘을 항상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화가들의 노력은 미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거듭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중운동은 조직이 갖는 힘의 최대치에서 제반문제들을 바라보는 실천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다시 진행되는 미술운동의 조직적 문제에 대한 제기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전국적인 미술대중의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91년 김기영 장례식에 보였던 설치미술의 힘을 항상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화가들의 노력은 미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장 해 술
(미술평론가)

자연속에서 심신의 피로풀고 다시금 일상으로

직원노조의 하루산행길



◇석릉산에서 점심식사를 즐기고 있는 노조원들.

정말 오랫동안의 날이었다. 늘상 반복되던 일상을 잠시나마 조그만 배낭에 담아두고 가을의 산으로 향할 수 있었음은 배낭의 크기만큼 자그마한 일이었지만 참 절한 일이었다. 학교를 출발할때 참여인원이 적음으로 인해 느꼈던 약간의 착잡함과 실망감은 목적이었던 가평의 석릉산입구 초입부터 펼쳐진 계곡의 풍광(風光)에 녹아버렸고 투명하다 못해 푸른 물에 깨끗이 씻겨져 버렸다. 아직도 내나라 땅에 서울과 그리 멀지않은 곳에 저토록 깨끗한 물이 살아있을 수 있었음은 그저 경이스러움 그 자체였다. 비포장도로를 가는 차체의 털털 거림또한 어릴적 우마차를 타고 농촌길을 달리던 향수에 젖게 하였고 가까이 또는 멀리 수놓은 듯 모습을 드러내곤 하던 손가의 한적함은 서울생활의 쉼들을 말끔이 씻어 주었다. 계곡을 따라 군데군데 자리잡은

작은 늪이나 연못들은 헤아리기가 지루하였고 들쭉날쭉 놓여있는 기암괴석은 자연의 외경스러움을 자아내기에 오히려 넘칠 정도였다. 산행길 초입에 하차하여 트롱탕(?)과 뱃물두부의 투박한 맛과 함께 점심을 들며 나누었던 피임선배님의 정겨운 회고담은 더 한층 입맛을 돋구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국에 몸을 담으셨다는 말쯤은 동국의 역사성을 실감하기에 충분하였다. 산 군데군데 남은 단풍의 정취와 사그러지는 모닥불을 아쉽게 뒤로 하며, 오늘과 같은 산행에 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을까, 우

리는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 까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현실속으로 돌아오려 할 때 발걸음은 즐거웠던 만민들이 무겁게 느껴졌고 어느덧 배낭속에는 다시 일상의 무로함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필요하리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충실히 그 일상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다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을 배낭에 담아가고 어느 곳이든지 떠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자 더욱 애써보리라.....

이 건 배
(직원노조 위원장)

◇지상전시 미술학과 과제전

미술학과는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는 2학년, 17일까지는 3학년들의 과제전 작품들을 동국관(5층)토비에서 전시한다.



◇雨



◇누드



◇그림자

▲옛 고 사정이 가 혼의 의미가 되새겨 주는 교훈은 무한하다. 그중 '溫故知新'이란 말이있다. 이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것을 알음 이르는 말이다. 세간에는 이말이 흔히 통용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이나 우리는 복고주의 또는 복고풍을 얘기하며 옛것을 재현해 익히기는 하지만 그것에 기초해 새것을 이루려는 노력이 많지 않다. 더욱이 옛것을 잘 계승하지도 못해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3일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에 항거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당시 학생들의 뜻을 기리는 '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우리 민족을 해약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그에 빌붙어 아부하는 무리들의 폭정을 청산하고 자주국가 건설에

바차를 가하라는 교훈을 준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의 날이 주는 교훈의 의미가 되새겨지는 경향이 있다. 10월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를 건설했던 레닌은 그의 저서에서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소나무이다'라고 주장하고

살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워진다.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농민과 하나되지 못한 채 학생 선전에 머물러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운동의 대중화를 주장하던 청년학생들이 선거에 전력하는 것은 92·93년 권력재편기를 준비하기 위한 함입을 한다. 그러나 우리 농민·노동자들도 함께 해야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칼로 일어난자칼로 당하리라는 합법칙성을 얘기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로 일어난 박정희정권, 12·12사태로 일어난 전두환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기억하기에 미국에게 종속되고 있는 현정권의 심판의 날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것은 새것을 창출할이요, 실천으로 옮기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92, 93년 심판의날은 바로 오늘 부터인 것이다. (浩)

溫故知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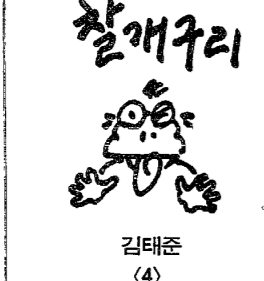
있다. 레닌이 말하는 생명의 소나무는 '실천'을 뜻한다. 즉, 되새겨지는 학생의 날을 맞는 청년학생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 ▲지금 현 정권의 미국에 대한 아부하는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권은 미국생들의 수업을 허가하려고, 이번 추곡수매가를 아주 저렴한 인상폭으로 제시해 우리 농민보다는 미국 농민을 먹여



◇올해의 민중미술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강경대 열사 분신으로 말미암은 5월정국 속에서 나타난 '장례미술'로 짐작할 수 있다.

었다. 결국 민중미술의 의식적 활동이라는 것은 장례식과 결합하는 시가메체운동, 5월정국이라는 대중투쟁에 가두어서 결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정국 속에서 미술운동은 미술운동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데 불과하다. 미술운동은 여타 운동의 집폭과 함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5월정국과 결합하였으며 김기영 장례식 이후 다시 미술운동은 현재의 상황을 점철하는 지점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91년 상반기의 그 화려한 시가메체들과는 달리 미술운동의 상황은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우선 이를 많은 화가들이 감지 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으로 예술운동의 중심으로서의 작품의 질의 문제, 내용의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는 또다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중에 의해서 민중미술이 비판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결계그림 등 대형그림들이 대중에게 직접 여접으로써 민중의 정서와 현실운동의 내용, 민중의 형식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설명적이고 나열적인 내용을 부파하게 옮겨두는 미술양식에서 민중의 현실과 미술적인 선전 방식, 곧 형상상의 발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 한 것이다. 작가의 세계관과 현실민중의 정서가 가장 주요하게 강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형식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민중미술은 형식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미술소집단 '두령'의 민



김태준 (4)



꿈이있는도전의 세계-휴먼테크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주는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